

사회참여가 노인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와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Effect of Social Participation Influencing Elderly's Suicidal Ideation

정일영

가톨릭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과

Il-Young Jeong(atobe99@hanmail.net)

요약

본고의 목적은 사회참여가 노인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사회적 지지와 자기효능감의 매개 효과를 확인하는 것에 있다. 이에 본고는 서울시복지패널 2차 년도(2010년) 자료에 기재된 총 6,304케이스 중, 65세 이상 1,429명을 분석대상으로 추출하여 연구에 적용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AMOS 18.0의 구조 방정식 모형을 사용하였으며, 매개효과의 유의수준을 확인하기 위하여 sobel 검증방식이 이용되었다. 분석 결과, 측정모형과 구조모형의 적합도가 양호하고 경로계수가 유의하여 본 모형이 분석에 적절한 모형임이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매개변수가 통제되면 직접효과가 상실되는 완전매개모형이 성립되었다. 그리고 sobel 검증방식을 응용한 결과, 사회적 지지와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유의수준이 입증되었다. 이에 본고는 제시된 결과를 기반으로, 2차 집단과 개인 간 관계의 중요성과 개입방안을 추론하였다.

■ 중심어 : | 사회참여 | 사회적 지지 | 자기효능감 | 자살생각 |

Abstract

This study's aim was to attest social support and self-efficacy's mediation effects in the path which social participation affected to elderly's suicidal ideation. Analysis data were Seoul Welfare Panel Data 2th wave(2010). A total of 1,429 cases aged over 65 were used for this study. Analysis method was AMOS 18.0'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d sobel test was used for attesting mediation effects's significance degree.

Analysis results had established that measurement model and structural model's fit was favorable, and all path coefficients had significance degree. Therefore, this model was suitable for this study. Also this results had proved that this study's model was full mediation model, and it means that if mediation variables controlled, and then direct effect was excluded. And analysis results confirmed social support and self-efficacy' mediation effect had significance, by using a sobel test. Based on analysis results, this study suggested the importance of relationship between secondary group and individual, and presented intervention plans.

■ keyword : | Social Participation | Social Support | Self-efficacy | Suicidal Ideation |

1. 서론

노년기는 생애주기적 특성 상 직업의 은퇴, 성인자녀 분가 등으로 심리·사회적 상실감을 경험하는 시기이다 [1]. 이러한 생애주기적 특질은 노인의 정신건강에 취약점으로 작동한다. 실제로 노인의 15%는 우울증 등의 정신건강 문제를 호소하고 있다[2]. 제시된 우울증과 같은 심리·건강문제는 노인 자살유발의 주요한 요인으로 기존 연구[3][4]에서 고찰되고 있다. 상기한 논의들은 노년기가 심리·사회적으로 자살에 취약한 생애주기임을 부각하고 있다.

실제로 노인 자살은 급격한 증가세를 견지하며, 이는 다양한 심리·사회문제의 유발요인으로 작동한다. 2011년 현재 한국은 65-74세 인구 10만명 당 81.8명의 자살 빈도가 확인되어, OECD 국가 중 최고 순위의 노인자살률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노년기 자살율은 연령에 비례하여 정적 상승하는 특성을 보유했으며, 노인집단은 자살을 치밀하게 계획하는 성향을 보유했다 타 연령군에 비해 성공률이 우월하다[5]. 그리고 노인의 자살은 당해 가족에게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전가하는 요인으로 기능한다. 이러한 요인들은 노인 자살에 대한 고찰·개입의 당위성으로 거론할 수 있다.

우선, 자살은 개념구성 상 실제 자살을 시도하는 자살시도·자살행위와, 이것의 예비단계라 할 수 있는 자살생각으로 구축된다[6]. 자살행위는 실제적 자살시도의 경험을 측정하는 지표로, 실제 연구에서는 그 응답 빈도가 현저히 저하된다. 그리고 노년기의 자살은 발설·노출을 금기시 하는 문화·관념이 지배적이어서, 자살시도·자살행위 개념은 측정·접근이 용이하지 않다 [7][8]. 이에 대한 대안으로 선행연구들은 그 자살행위의 예측요인이며 이것의 전단계로 정의되는, 자살생각에 대한 고찰을 시도하고 있다[3][8-12]. 제시된 관점을 기반으로 본고는 자살에 대한 ‘욕구·관념’, ‘세부적·현실적 계획’ 등의 문항으로 구축된 자살생각 개념을 노인에 적용하고자 한다.

기존 연구에서는 이러한 노인 자살생각의 예측요인으로, 심리·사회적 특성 변수들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노인의 우울,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등의 심리·

정신적 요인[13], 그리고 사회적 지지, 가족관계, 친구관계 등의 소속집단 사회적 관계망 요인이 노인 자살 관련 지표로 부각되고 있다[9]. 그러나 노년기는 사회적 관계망의 급격한 축소를 경험하는 시기로서, 관계망의 대체와 역할정체성을 보완할 수 있는 사회참여의 중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지역사회 단체 참여·소속을 포괄하는 사회참여와 노인 자살생각의 상관성에 대한 연구 [14][15]가 점진적으로 시도되고 있다.

선행 연구에서 사회참여는 유사한 취미를 향유하는 동호회 등의 여가활동 참여, 지역사회 내 문화예술 활동 참여, 종교활동, 정당참여·대표자 회의를 포괄한 정당·정치참여, 동창회, 향우회, 종교활동 등과 같은 요인들로 개념 범주화 되어 있다[14].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노년기는 사회활동의 범위와 형태가 지극히 제한적인 특질을 보유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당정치 참여나 지역 대표자 회의, 문화예술 단체참여는 참여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노인이 경험하는 사회참여의 하위요인으로 통제하기 어렵다[16]. 이에 본고에서는 선행 연구 [15][17]를 기반으로, 노인의 사회참여를 동창회 모임, 유사한 취미나 스포츠 모임, 향우회, 종교참여 등의 하위변인으로 개념·범주화 한다.

상기한 사회참여 개념을 바탕으로, 사회참여와 자살생각 간의 경로를 고찰한 연구들은 그 결과가 상이하다. 우선, 사회참여가 직접적으로 노인의 자살생각과 부적상관에 있음을 언급하는 연구[14]가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여가활동, 종교활동 등의 사회활동이 고령자 자살생각을 유의미하게 경감하는 효과를 보유했음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와 상반된 결과로서, 사회참여가 노인 자살생각을 저하하는 효과가 미미하거나, 그 예측력이 약하다는 입장의 연구[15][18][19]도 양립하고 있다. 이는 사회참여 자체가 노인에게 소속감과 역할부여를 통해 노인의 자살생각을 제어하는 직접경로와 더불어, 단순히 두 변수간의 직접 경로로서 노인 자살생각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논의가 양립될 수 있음을 부각한다.

제시된 사회참여는 노인 자살생각을 직접적으로 설명하기도 하지만, 다양한 경로를 통해 결과변수를 예측·설명하는 논의도 성립 가능하다. 첫째, 사회참여는 친구, 주변인이 제공하는 정서적 지원·관심·일체감·배

려의 개념인 사회적 지지 수준을 배양하여[20], 최종적으로 사회적 지지가 노인의 자살생각에 도달하는 매개경로의 구축이 성립된다[17]. 둘째, 사회참여가 자기효능감을 상승시킨 후[21], 재차 자기효능감이 노인의 자살생각 수준을 경감하는[7][13] 매개경로의 정립 역시 가능하다.

그러나 상기한 논의에도 노인 자살생각에 접근한 연구들은 사회참여, 사회적 지지, 자기효능감을 단선적인 수준에서 고찰하고 있으며, 사회참여와 자살생각을 매개하는 구조적 경로에 대한 고찰은 미미하다고 하겠다. 이는 노년기 축소되는 사회적 지지와 자기효능감을 공급하는 사회참여 개념의 중요성을 간과한 것이라 하겠다. 우선, 사회참여는 노인에게 역할정체감, 소속감 부여를 통해 고립감·무망감을 제어하여 자살생각 저하를 조력한다[14]. 그리고 사회참여는 당해 구성원들의 상호작용·교류인 사회적 지지를 내재하고 있다[17]. 이러한 사회적 지지는 정서적 안정감·소속감·일체감 등을 통하여 극단적 관념인 자살생각을 부적감소시킬 수 있다[9][22]. 동시에 사회참여에서 제공받은 정체성·소속감·안정감 등은 노인에게 계획·역할·목표에 대한 자신감·신뢰감인 자기효능감을 인지·증진하도록 지지한다[17][19][23]. 최종적으로 상기한 자기효능감은 노년기 자살생각 경감을 조력한다[8][24]. 제시된 사안은 사회참여가 사회적 지지와 자기효능감의 매개를 통해 최종적으로 노인 자살생각에 도달하는 경로의 지지근거로 적용될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사회참여와 사회적 지지, 자기효능감이 어떠한 경로관계를 통해 노인 자살생각에 도달하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노인 자살생각을 예측하는 사회참여와 자살생각의 직접경로와 사회적 지지, 자기효능감의 매개경로 규명을 목적으로 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경로를 응용하여, 노인 자살 예방체계 구축의 근거로서 이용하고자 한다. 상기한 논의를 기반으로 본고의 연구문제를 설정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참여는 노인의 자살생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사회참여는 어떠한 경로를 거쳐 노인의 자살생

각에 영향을 미치는가?

II. 이론적 배경

1. 노인의 자살생각

사전적 정의에서 자살은 의도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중단하는 행위로 개념정의 된다[25]. 선행연구[3][10]에서는 이러한 자살의 개념은 자살행위, 자살시도와, 자살생각으로 분할되어 고찰·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자살행위·자살시도는 직접적으로 자살을 시도해 본 경험을 측정하는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살충동·자살행위의 개념은 연구대상에 대한 측정·접근이 난해하고, 자살이 발생한 차후에 고찰이 수행되는 특질을 보유했다[7][8]. 그리고 한국사회는 문화적 특성 상 자살에 대한 거론을 금기시하는 측면이 잔존한다. 이를 노인집단에 적용해보면, 노인집단 역시 자녀·친지·주변인에게 공개적으로 자살에 대한 논의·조력 획득을 수행하기 어렵다. 이러한 난점에 대한 대안으로서, 최근의 연구[5][11]들은 자살시도·자살행위의 사전단계[12]이며 자살에 대한 관념, 계획, 시행의지 등의 하위변인으로 구축된 자살생각 개념을 노인 관련 연구에 응용하고 있다.

노년기는 생애주기적 특성 상 사회적 역할의 상실을 경험하며[1], 동시에 각종 사회적 차별에 직면하는 위험이 상존한다[3]. 이러한 연령적 특질은 노인에게 우울감·무망감·고립감 등을 유발하여, 자살행위의 전단계인 자살생각의 발생 가능성을 증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26]. 상기 관점을 기반으로, 기존 연구[3][8]에서는 Harwood(1986)의 Ideation Scale를 응용한 척도가 노인 자살생각 측정에 주로 이용되었다. 위의 척도에서 노년기 자살생각은 특질은 ‘자살에 대한 관념·욕구’, ‘자살생각을 사회적 타자에게 발설함’, ‘인생이 자살로 종결되는 생각’ 등의 문항으로 구축되어 있다. 그러나 노인은 타 연령군에 비해 자살 가능성을 현실적·세부적으로 타진해 성공 가능성이 높다[5][9]. 이는 노년기 자살생각 개념변주에 자살 계획·현실성 고찰 등의 문항지표가 추가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실제 국내의 선행연구[11][22]

들은 ‘현실적 실현 가능성과 기회여부 고찰’, ‘실제 준비 정도 고찰’, ‘자살능력에 대한 고찰’ 등의 지표가 추가된 Beck의 SSI Scale(1979)을 연구에 적용하고 있다.

이에 이인정의 연구[11]에서는 SSI Scale을 응용하여, 노인 자살생각의 하위지표를 ‘자살에 대한 욕구’, ‘관념’, ‘빈도’, ‘제어능력’, ‘계획’, ‘현실성·기회 고찰’, ‘타인에게 발설’, ‘자살에 대한 준비’, ‘자살할 수 있는 능력’ 등으로 구성하고 있다. 양남영·문선영의 연구[22] 역시 자살에 대한 세부적·현실적 실현 가망을 고찰하는 지표가 척도에 구축되었다. 그러나 지표문항 중 이인정[11]이 사용한 ‘주변인에게 자살욕구를 발설한 적이 있다’, ‘자살을 위해 실제로 준비한 것이 있다’ 등의 척도문항은 현실적으로 죽음에 대한 불안감·공포심·거부감이 강한 노인 집단군[1][8]에 일반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난점이 있다. 그리고 통계적으로 그 응답빈도가 매우 저하되어, 일반화의 문제가 발현된다. 추가적으로, ‘실제로 자살을 시도할 능력이 있는가’라는 문항지표 역시 경험적 자료에서 정규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 이는 상기한 문항들이 일반화·재연화를 목적에 둔 현실연구에 적합하지 않음을 증명한다. 이에 노인집단의 연령대적 특성, 통계적 자료검증을 고려하여, 본고는 노인 자살생각의 개념구성을 ‘자살에 대한 욕구·관념’, ‘자살에 대한 가능성 고찰·현실성 고찰·기회 타진’ 등의 하위요인으로서 범주화 하고자 한다.

2. 사회참여와 자살생각

사회참여와 노인 자살생각의 상관성에 대한 연구[14][15][19][27][28]들은 그 결과가 매우 상이하다. 일반적으로 사회참여는 종교활동, 동호회·향우회, 문화활동, 정당정치 참여, 자원봉사, 여가 등으로 범주화 된다[28]. 이러한 사회참여는 일정한 생활방식·사회통합성 배양 등의 기제로서 노인의 자살생각 수준을 저하시킬 수 있다[14]. 노인의 심리사회적 자원과 노인 자살생각의 상관성에 접근한 배진희의 연구[14]에서는 여가·봉사 등의 사회참여활동이 우울·상실로 인해 야기되는 자살생각에 대한 완충효과를 보유했음을 증명하였다. 제시된 논의들은 역할상실과 사회적 차별을 경험[1][3][19]하는 노년기에, 역할 정체감·소속감을 부여하는 사회참여가

노인 자살생각과 부적상관이 있음을 제시해준다.

그러나 상기한 사회참여가 노인의 자살생각과 유의미한 상관성이 없다는 연구[18] 역시 상존하고 있다. 중증만성질환자 돌봄 노인을 고찰한 최신애·하규수의 연구[15]에서는 공식적·비공식적 사회참여가 노인의 자살생각과 유의미한 상관성이 없음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사회자본과 노인 자살충동의 관계에 접근한 신상진·조영태의 연구[27]는 사회자본의 하위요인으로서 사회참여의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위의 연구에서 모임·단체 참여, 봉사활동 참여 등의 사회참여와 노인 자살충동은 유의미한 관계가 검증되지 않았다. 그리고 임지영[18]은 사회참여를 종교활동, 사회단체참여, 여가·문화활동, 정치참여 등으로 분류하여 스트레스와 자살생각 간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종교활동 이외 기타요인들은 유의미한 완충효과가 도출되지 않았다. 제시된 연구들은 사회참여가 노인의 자살생각을 직접적으로 예측·설명하기도 하지만, 단순히 사회참여의 물리적 빈도로서 노인의 자살을 설명하기에는 무리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사안은 사회참여와 노인 자살생각 간의 직접경로 형성과 함께, 사회참여와 자살생각을 매개하는 변수에 대한 추가적 고찰이 필요함을 부각한다고 하겠다.

3. 사회참여와 사회적 지지

노년기 사회적 지지 수준을 예측·설명하는 사회참여의 하위요인은, 여가활동과 자원 봉사활동, 종교활동을 주축으로 고찰되었다[20][29]. 특히, 노년기는 사회적 역할의 축소, 주변인의 죽음이라는 상실을 경험하는 시기이다[4]. 제시된 생애주기적 특질은 외부활동의 급격한 축소라는 결과를 야기한다. 이에 상실된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사회참여의 중요성이 부각되며, 종교활동·자원봉사 등의 사회참여는 유의미한 사회적 타자의 공급처로서 작용할 수 있다[16]. 이처럼 새로운 사회적 접촉의 장으로 기능하는 사회참여는 구성원 간의 정서적·도구적 지원을 교환하는 사회적 지지의 원천으로 작동한다[17]. 제시된 김동배 외의 연구[17]에서는 향우회·동창회와 같은 요인들이 추가적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 역시 주변인·친구에 의한 정서적 공

감, 동질감 등의 사회적 지지와 정적관계에 있음을 규명하였다. 상기한 논의들은 종교활동·친목활동 등의 사회참여가 노인의 사회적 지지와 관련이 있음을 지지하는 근거라 하겠다.

4. 사회적 지지와 자살생각

사회적 지지는 개념적으로 사회적 연대망, 구성원으로부터 부여받는 연대감, 유의미한 타자들과의 만남·근접성·연락빈도 등으로 정의된다[4]. 이러한 사회적 지지는 제공하는 대상자와, 제공의 방향, 제공의 종류에 따라 해당 개념 범주가 상이해진다. 우선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지지의 대상자는 주변인, 가족, 친구 등으로 대별된다. 제공 방향의 경우, 타자로부터 지원을 받는 수혜형, 타인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공급형, 그리고 상호간의 지원을 교환하는 상호 호혜형으로 그 유형이 공립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교환하는 자원은 정서적 지지, 도구적 지지, 금전적 지지 등으로 그 유형이 분할되고 있다. 특히 사회적 지지는 전 생애주기적으로 심리적 특질을 예측하는 요인으로, 노인집단의 경우 급격한 사회적 관계망의 축소로 인해 사회적 지지의 중요성이 타 연령군에 비해 더욱 강조된다고 할 수 있다[26].

이러한 노년기 사회적 관계망 축소는 심리적·정서적 고립감을 야기할 수 있다[1][30][31]. 상기한 노년기 특질은 사회적 지지의 다양한 자원 중 정서적 지지의 중요성을 유추하게 한다. 실제 사회적 지지에 대한 선행 연구는 주변인, 친구에 의한 동질감·격려 등의 요인이 노년기에 정서적 안정감을 부여하는 원천으로 제기되었다[17]. 구체적으로, 남성노인은 은퇴로 인한 직업상실을 대체할 대체재로서 주변인, 친구에 의한 정서적 지지를 선호한다. 여성노인 역시, 원천적으로 사회적 관계망이 협소한 측면이 상존[2]하기 때문에 역할형성·정서적 안정을 부여받는 사회적 지지의 필요성이 대두된다[4]. 이에 첨언하여, 오인근 외의 연구[2]에서는 사회적 지지 감소가 정서적으로 고독감·무망감을 증가시키며, 이러한 심리적 불안은 자살생각의 수준과 상관 있음을 제기하고 있다[15]. 구체적으로 기타 연구[9][26]에서는 친구, 주변인에 공의한 정서적 감·일체감 등의 요인이 노년기 발생하는 무력감·우울감·공허감을

제어하여 최종적으로 자살 위험성을 통제할 수 있음을 규명하였다. 서문진희·이현아의 연구[9]에서는 자신과 심리적 공감을 공유하는 친구·주변인 등의 사회적 타자가 부재하거나, 문제발생 시 이를 논의할 대상이 부족할 경우 노년기 자살생각이 정적으로 증가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양남영·문선영의 연구[22] 역시 가족, 친구, 주변인에 의한 정서적 지원이 결핍 시 노인의 자살생각 수준이 상승함을 피력하고 있다. 위에 제시된 논의는 사회적 지지가 노인의 자살생각 수준과 연관이 있음을 지지하는 근거로 작동된다.

5. 사회참여와 자기효능감

기존 연구[21][23]에서 사회참여와 자기효능감은 변수간의 상관성이 있음이 제시된다. 우선 노년기의 자기효능감을 예측·설명하는 사회참여의 개념요인은 일자리 사업 참여, 자원봉사활동 참여를 주요 요인으로 하여 진행되어 왔다[21]. 노년기는 심리적·사회적 역할획득이 중요한 시기로서, 일자리 사업과 자원봉사활동은 금전적 이익에 더하여 노인 개인에게 일정한 역할을 제공할 수 있다[23]. 은퇴와 성인자녀 분가로 인해, 역할 상실감을 경험하는 노년기에 제시된 사회활동 참여 요인은 역할정체감의 대체재로서의 기능이 수행될 수 있다. 이렇게 형성된 역할 정체성은 자신이 수행해야 할 과업·기능을 인지하게 해주며, 이는 과업을 수행하는 자아역량에 대한 발견·신뢰로 발전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무배우자 노인의 사회참여를 고찰한 김동배 외의 연구[17]에서는 향우회, 종교활동, 동호회 모임이 등이 사회참여의 새로운 요인으로 추가 제시되었다. 상기 연구에서는 노인의 사회참여가 자아능력·자신감·신뢰감 등이 포괄된 자기효능감과 상관성을 증명하였다. 이러한 논의들은 종교활동·친목활동 등의 사회참여로 인해 획득된 정체성·안정감·소속감이 개인 역량에 대한 신뢰인 자기효능감과 정적상관에 있음을 입증한다 하겠다.

6. 자기효능감과 자살생각

자기효능감은 개인 능력 유능함에 대한 신뢰감·자신감, 그리고 미래 과업에 대한 계획능력으로 구성된다

[32]. 자기효능감과 자살생각의 상관성에 대한 연구는 청소년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자기효능감은 개인 역량에 자신감·계획능력 등을 배양하며[7], 이러한 효능감은 정신건강을 향상시켜 자살과 같은 극단적 선택을 방지하는 청소년 보호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33]. 이를 노인에게 적용하면, 자아역량에 대한 신뢰감인 자기효능감은 노인 자살위험과 부적상관에 있다. 노인은 과거에 대한 회환을 보유하는 생애주기적 특질을 보유한다. 이러한 전 생애에 대한 회환은 노인의 심리적 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1]. 제시된 노년기 심리적 특질을 야기하는 요인은 자기효능감으로 거론할 수 있다[13]. 자기효능감의 감소는 심리적 불안·우울감과 같은 위험요소의 증대로 연결되어, 노인의 자살생각 수준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한다. 반대로 자기효능감은 자신이 수행해야 할 과업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능력을 하위지표로 구성된다. 이러한 자기효능감은 노인에게 삶에 대한 의지·미래지향적 사고를 배양하게 하여 자살생각을 경감시킬 수 있다[7][24]. 상기한 논의들은 자기효능감과 노인의 자살생각의 관계를 고찰하는 근거로 작동한다 하겠다.

7. 연구모형

이상의 이론적 논의와 경험적 자료들을 통해 도출한 연구모형은 아래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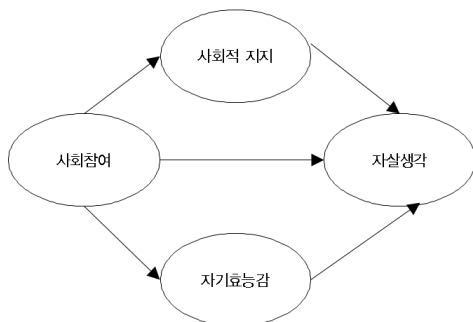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III.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본고에서 분석에 이용한 자료는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배포한 서울시 복지패널 2010년(2차년도) 자료이다. SWPS는 2009년 조사 시작 이후 서울시에 거주하는 15세 이상 연령군을 층화집락추출 방식으로 표집·추출하였으며, 동일대상에 시계열적으로 접근한 패널조사 방식이 사용되었다. 이중 본고에서는 전체 케이스 6,304명 중 65세 이상에 해당하는 1,429명을 선별하여 연구에 이용하였다. 마지막으로, 본고는 서울시 복지패널 2차년도 자료에서 분석에 필요한 사회참여, 사회적 지지, 자기효능감, 자살생각 등의 변수를 추출하여 분석에 투입하였다.

2. 주요변수 측정

2.1 사회참여

본고에서 사회참여는 독립변수로 통제되어 있으며, ‘각급 학교 동창회 등 출신학교가 같은 사람들의 모임’, ‘비슷한 취미나 운동을 즐기는 사람들의 모임’, ‘향우회 등 출신지역이 같은 사람들의 모임’, ‘종교단체의 활동이나 모임’ 등의 하위요인으로 성립되어 있다. 구체적인 측정은 5점 리커트 척도방식이 이용되었으며, ‘매우 적극적으로 활동한다(1점)’에서 ‘전혀 활동하지도 않는다(5점)’로 변수값이 구성되어 있다. 제시된 변수값은 역코딩을 통해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참여 수준이 상승하는 것으로 전환하였다. 최종적으로 본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746으로 검증되었다.

2.2 사회적 지지

본고에서 사회적 지지는 매개변수로 통제되어 있으며, ‘나는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편이다’, ‘나는 친한 친구가 별로 없다’, ‘내가 어려울 때 도움을 주거나 의지할 사람이 없다’, ‘나는 내 주변 사람들과 공통점이 많다’, ‘나만 소외 당하는 느낌이다’, ‘마음만 먹으면 친구를 쉽게 사귄다’ 등의 하위요인으로 구축되었다. 측정 방식으로는 5점 리커트 척도방식이 이용되었으며, ‘매우 동의한다(1점)’에서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5점)’로

변수값이 성립되어 있다. 점수에 비례하여 사회적 지지가 상승하는 것으로 조작하기 위해, 긍정분항 3문항의 경우 역점수 코딩 변환 후 분석에 투입하였다. 그리고 본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736으로 검증되었다.

2.3 자기효능감

본고에서 자기효능감은 매개변수로 통제되어 있으며, '나는 때때로 어려운 일을 하는 것을 피한다', '나는 매우 일을 딱 잘라서 결정하는 편이다', '나는 한번 마음먹은 일을 꼭 하는 편이다', '나는 자신감이 매우 많다', '나는 도전을 받을 때 더 잘한다', '내가 가진 문제가 많아도 모두 해결될 것이다', '내가 아주 잘하는 일이 몇 가지 있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의지가 강한 편이다' 등의 하위요인으로 구축되어 있다. 측정방식으로 5점 리커트 측정방식이 이용되었으며, '매우 동의한다(1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5점)'로 변수값이 구성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점수 상승에 따라 자기효능감이 증가하는 것으로 설정하기 위해, 역점수 코딩방식을 적용하였다. 본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848로 검증되었다.

2.4 자살생각

본고에서 자살생각은 종속변수로 통제되었다. 기존 연구[11][22]에서 자살생각은 Beck의 SSI를 변안-응용한 척도가 이용되었다. 구체적으로, 제시된 연구에서 자살생각은 '자살에 대한 욕구', '생각빈도', '자살충동 통제', '현실적 가능성·실현기회 타진', '타자에게 자살생각 발설', '자살할 수 있는 능력', '자살에 대한 준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서울시 복지패널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에 적합한 문항지표를 선별하였다. 위에 제시된 문항 중 '자살하고 싶은 충동을 통제할 수 있는가', '실제로 자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자살에 대해 실행하기 위해 실제로 준비한 것이 있는가', '자살에 대한 생각을 숨긴 적이 있는가'의 문항은 정규성 검정에서 첨도(Kurtosis)값이 10을 초과해 정규성에 문제가 도출되었다. 이에 본고는 노인 자살생각을 '자살에 대한 욕구', '관념', '자살에 대한 현실적 가능성·실현기회 탐색'으로 범위를 한정하였다. 자살에 대한 욕구·생각빈도는 '죽고 싶은 소망은', '수동적 자살

욕구가 생길때는', '얼마나 자주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가' 등으로, 자살에 대한 현실적 가능성·기회 타진은 '자살방법을 깊게 생각했다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며 시도할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등으로 총 4문항을 분석에 적용하였다. 제시된 지표의 측정은 3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며, 점수가 상승에 따라 자살생각 역시 높아지는 것으로 설정되었다. 최종적으로 본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831값으로 양호한 신뢰수준이 도출되었다.

3. 분석방법

본고에서 이용한 분석방법은 SPSS 18.0의 빈도분석, 집단 간 비교를 위한 t-test, 신뢰도(cronbach's α) 검정, 정규성 검정, AMOS 18.0의 구조방정식 분석모형이다. 구조방정식을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련의 선행과정을 경유해야 한다. 첫째, 정규성 가정이 충족되어야 한다. 정규성 가정은 SPSS 18.0의 왜도(skewness)와 첨도(kurtosis)를 통해서 검증할 수 있다. 왜도는 기준값 ± 3 이하, 첨도는 기준값 ± 10 이내에서 충족되어야 한다. 본고에서는 분석에 사용된 모든 문항이 위의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둘째, 개념변수의 신뢰도가 성립되어야 한다. 신뢰도는 통계적으로 0.6 이상을 충족할 경우 무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셋째, 잠재모형의 타당도 검증을 위해 측정모형 검증이 시행된다. 넷째, 직접효과 매개효과의 경로계수 검증을 위해 구조모형 검증을 실시한다. 다섯째, 매개효과 크기의 유의수준 확인을 위한 sobel 검증 방식이 이용된다. 마지막으로, 경로계수의 효과크기 비교를 위한 효과분해를 시행한다.

IV.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1 일반적 특성

본고에서 고찰한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에 정리되어 있다. 우선 성별의 경우 남자 593명(41.5%), 여자 836명(58.5%)으로 검증되었다. 이는 상대

적 평균수명이 우월한 여성노인의 특징이 반영된 것이라 하겠다. 그리고 학력은 초등 졸 이하가 684명(47.9%)으로, 아직 노인의 학력수준이 전반적으로 저학력에 담보해 있음을 인지하게 해준다. 혼인상태의 경우는 유배우가 900명(63.0%)으로 나타나 절반 이상의 대상자가 배우자와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종교유무는 872(61.0%)명이 '없음'이라고 응답해 종교생활을 하는 대상자가 상대적으로 적음을 인지하게 한다. 마지막으로, 취업상태는 198명(13.9%)만이 취업 중으로 나타나, 노인의 취업활동이 아직은 열악한 상황임을 유추할 수 있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수구분		빈도	백분율
성별	남자	593	41.5
	여자	836	58.5
	총합	1,429	100.0
학력	초등졸 이하	684	47.9
	중학교	245	17.1
	고등학교	292	20.4
	전문대학	26	1.8
	4년제 대학	165	11.5
	대학원 석사 이상	17	1.2
	총합	1,429	100.0
혼인상태	미혼	12	.8
	유배우	900	63.0
	이혼	38	2.7
	사별	462	32.3
	별거	17	1.2
	총합	1,429	100.0
종교유무	있음	557	39.0
	없음	872	61.0
	총합	1,429	100.0
취업상태	취업자	198	13.9
	비취업자	1,231	86.1
	총합	1,429	100.0

2. 주요변수 기술통계

본고에서 사용된 주요 잠재변수의 수준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우선, 자살생각 변인의 경우, 3점 리커트 척도 기준으로 최소 1.13점에서 최대 1.28점 값으로 평균값이 산출되었다. 이는 노인의 전반적인 자살생각 수준이 극단적으로 수준에 도달하지는 않은 것으로 인지할 수 있다. 그리고 사회참여의 경우 5점 리커트 기준으로 1.62점에서 1.90점으로 구간화 되어, 노인의 사회참여 수준이 낮은 상태에 담보하고 있음을 인지할 수

있다. 그리고 사회참여 수준은 표준오차 값이 1을 초과해 응답자간 편차가 존재함을 파악하게 해준다. 조사대상자의 사회적지지 수준은 5점 리커트 척도 기준으로, 3.20점에서 3.56점으로 검증되었다. 마지막으로 자기효능감은 5점 리커트 척도 기준으로, 2.94점에서 3.22점 수준에서 도출되었다.

표 2.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잠재변인	측정변인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자살생각	자살생각1	1	3	1.28	.493
	자살생각2	1	3	1.22	.437
	자살생각3	1	3	1.13	.349
	자살생각4	1	3	1.15	.380
사회참여	사회참여1	1	5	1.77	1.111
	사회참여2	1	5	1.90	1.161
	사회참여3	1	5	1.62	.931
	사회참여4	1	5	1.90	1.224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1	1	5	3.37	.811
	사회적 지지2	1	5	3.33	.792
	사회적 지지3	1	5	3.20	.678
	사회적 지지4	1	5	3.56	.784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1	1	5	3.09	.823
	자기효능감2	1	5	3.10	.709
	자기효능감3	1	5	3.17	.752
	자기효능감4	1	5	3.05	.737
	자기효능감5	1	5	2.94	.675
	자기효능감6	1	5	3.15	.677
	자기효능감7	1	5	3.22	.692
	자기효능감8	1	5	3.25	.732

3. 측정모형 분석

측정모형 분석은 측정지표의 잠재변인 반영수준을 검증하기 위한 분석 방법이다. 본고에서는 확인적 요인 분석 방식이 사용되었으며, 구체적으로, 모형전체의 적합도 수준과 요인적재량의 유의수준 검증으로 구성된 다. 전체적인 결과는 [표 3]에서 기재되어 있다. 우선 모형 전체의 적합도 수준은 IFI=0.912, CFI=0.912, RMSEA=0.063으로 검증되어, 모형 전체의 설명력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기준지표에 적재되는 각 변인들의 요인적재량 검증결과 전체지표가 유의미한 수준(p<.001)으로 검증되었다. 상기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잠재변

인이 측정지표를 반영하는 타당도가 양호하게 성립함을 인지할 수 있다.

표 3. 측정모형 분석결과

잠재변수	측정 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값
자살생각	P10F5_13	1.000	.677	
	P10F5_7	.907	.669	21.856***
	P10F5_5	1.387	.816	25.396***
	P10F5_2	1.576	.822	25.487***
사회적 지지	P10I6_5	1.000	.735	
	P10I6_4	.487	.413	13.887***
	P10I6_3	.912	.663	21.636***
	P10I6_2	1.101	.782	23.973***
사회참여	P10H1_5	1.000	.449	
	P10H1_3	1.071	.632	14.421***
	P10H1_2	1.577	.746	15.337***
	P10H1_1	1.678	.830	15.621***
자기 효능감	P10I5_10	1.000	.707	
	P10I5_9	.848	.635	22.189***
	P10I5_8	.737	.564	19.801***
	P10I5_5	.901	.691	24.076***
	P10I5_4	1.125	.791	27.285***
	P10I5_3	1.141	.786	27.120***
	P10I5_2	.869	.635	22.202***
	P10I5_1	.607	.382	13.503***

*** $p < .001$, $\chi^2 = 1087.848$ ***($df=164$), $IFI = 0.912$, $CFI = 0.912$, $RMSEA = 0.063$

그리고 본고에서는 분석에 투입된 주요 잠재변수간의 공변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상관관계 계수(pearson's r) 검증 방식을 이용하였다. 구체적인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표에 제시된 모든 잠재변수 사이의 상관관계는 유의미($p < .01$)하며, 사회참여는 자살생각과 부적상관($r = -.156$, $p < .01$)이 도출되었다. 그리고 사회참여는 사회적 지지와 정적상관($r = .369$, $p < .01$)을 보임과 동시에 자기효능감과도 정적상관($r = .365$, $p < .01$)을 관계에 있음이 검증되었다. 이에 더하여 사회적 지지는 자살생각과 부적상관($r = -.257$, $p < .01$) 관계에 있으며, 자기효능감 역시 자살생각과 부적상관($r = -.205$, $p < .01$) 관계라는 것을 아래의 결과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각 잠재변수들이 일정수준 이상의 상관성

을 보유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하겠다.

표 4. 잠재변수 간 상관관계

	사회참여	자살생각	사회지지	자기효능
사회참여	1	-.156**	.369**	.365**
자살생각	-.156**	1	-.257**	-.205**
사회지지	.369**	-.257**	1	.471**
자기효능	.365**	-.205**	.471**	1

** $p < .01$

4. 구조모형 분석

구조모형 분석은 경로 간 인과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분석방법이다. 구조방정식에서 구조모형 분석은 독립변수와 자살생각의 직접관계를 추정하는 직접경로 검증과, 매개변수들이 통제된 이후의 변수 간 관계를 추정하는 완전구조모형 검증으로 구축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모형전체의 적합도 검증과, 개별경로의 회귀계수를 고찰하는 검증방식이 사용될 것이다.

우선 직접효과 검증은, 사회참여를 설명변수로 자살생각을 결과변수로 지정하여 분석이 이루어진다. 사회참여에서 자살생각에 도달하는 경로계수 크기는 $\beta = -.105$ 로 검증되었다. 그리고 신뢰수준 역시 유의미한 수준($p < .001$)으로 도출되었으며, 이 결과는 [그림 2]에 제시되어 있다. 이는 사회참여가 자살생각을 유의미하게 예측하고 있음을 방증하며, 방향성이 부적으로 검증되어 사회참여가 자살생각 수준을 경감하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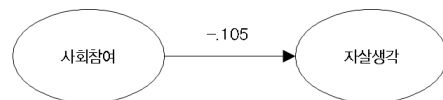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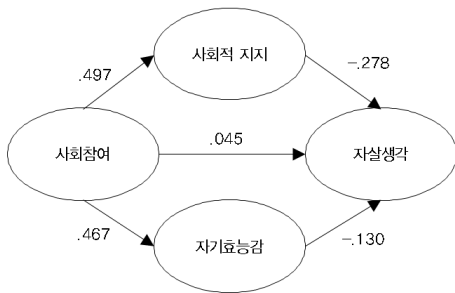


그림 2. 사회참여와 노인 자살생각의 관계

이에, 직접경로를 기반으로 매개변수들이 통제된 완전구조모형 검증을 시행하였다. 매개변수들을 투입한 결과, 사회참여와 자살생각 간 경로계수의 유의수준이 도출되지 않았다. 이는 사회참여의 효과가 매개변수들을 통해서만 결과변수에 전달되는 완전매개모형임을 방증하는 것이라 하겠다. 구체적으로, 경로간의 회귀계

수를 고찰하면 [표 5]와 같다. 우선, 사회참여는 사회적 지지를 유의미한 수준($\beta=.497, p<.001$)에서 예측하고 있고, 사회적 지지는 자살생각을 유의미한 수준($\beta=-.278, p<.001$)에서 설명하고 있음이 증명되었다. 그리고 사회참여는 자기효능감을 유의미한 수준($\beta=.467, p<.001$)에서 예측하고 있으며, 재차 자기효능감은 자살생각을 유의미한 수준($\beta=-.130, p<.001$)에서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사회참여→사회적 지지→자살생각, 사회참여→자기효능감→자살생각의 경로의 경로계수가 성립됨을 인지하게 해준다.



IFI=0.900, CFI=0.900, RMSEA=0.067

그림 3. 구조모형 분석결과

표 5. 구조모형 경로계수

경로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표준 오차	t값
사회참여 → 사회적 지지	.572	.497	.049	11.611***
사회참여 → 자기효능감	.436	.467	.038	11.334***
사회참여 → 자살생각	.033	.045	.031	1.045
사회적지지 → 자살생각	-.176	-.278	.025	-7.054***
자기효능감 → 자살생각	-.102	-.130	.028	-3.686***

*** $p<.001, \chi^2=1215.432$ ***($df=165$), IFI=0.900, CFI=0.900, RMSEA=0.067

5. 매개효과 분석

본고에서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적용한 방법은 sobel test 방식이다. 제시된 방식은 독립변수, 매개변수, 종속변수의 간접효과를 검증하는 방법으로 응용되고 있다.

이러한 sobel test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예비단계로서 Barron & Kenny 3단계 충족여부, 간접효과 크기, 경로의 표준오차 값 확인이 선행되어야 한다.

Barron & Kenny 3단계는 각 경로계수의 유의수준을 검증하는 방안으로, Barron & Kenny 1단계는 독립변수의 영향이 종속변수에 도달하는 경로계수의 유의수준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본고에서는 사회참여가 자살생각을 유의미한 수준에서 설명하고 있음이 증명되었다. 그리고 Barron & Kenny 2단계는 독립변수가 매개변수를 예측하는 수준을 검증하는 과정이다. 본고에서는, 독립변수인 사회참여가 사회적 지지와 자기효능감을 유의미한 수준에서 설명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Barron & Kenny 3단계는 매개변수에서 종속변수에 도달하는 경로계수의 유의수준을 확인하는 절차이다. 본고의 매개변수인 사회적 지지와 자기효능감은 모두 종속변수인 자살생각에 도달하는 경로계수 수준이 유의미하였다. 이에 본고에서는 사회참여→사회적 지지→자살생각의 경로와 사회참여→자기효능감→자살생각 경로의 매개효과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처럼 Barron & Kenny 방식을 통해 경로계수의 유의수준을 확인한 후에는, 본격적인 sobel test 분석을 시행한다. sobel 검증을 위해서는 간접효과의 크기 값, 경로의 표준오차 값을 필요로 한다. 구체적으로 sobel 검증은 간접효과 크기 ab 값, 경로 a의 표준오차 값 sa^2 값, b의 표준오차 값 sb^2 로 구성된다. 그리고 이를 종합한 다음의 공식으로 표준화된 Z값¹⁾을 산출한다.

$$Z = \frac{ab}{\sqrt{b^2sa^2 + a^2sb^2}}$$

상기한 공식을 응용하여, 매개효과 유의수준을 검증하여 본 결과, 사회참여→사회적 지지→자살생각 경로의 매개효과는 유의미한 수준($Z=6.03, p<.001$)에서 검증되었다. 그리고 사회참여→자기효능감→자살생각 경로 역시 유의미한 수준($Z=3.47, p<.001$)에서 매개효과가 도출되었다. 이는 사회참여 수준이 사회적 지지와

1) 구체적인 계산은 다음의 사이트를 이용하였다.
(<http://www.danielsoper.com/statcalc3/calc.aspx?id=31>)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자살생각을 예측하는 매개효과가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 하겠다.

그리고 본고에서는 개별경로가 노인의 자살생각에 도달하는 효과 크기를 비교하기 위해, 효과분해를 시행하도록 한다. 효과분해는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로 구성된다. 직접효과는 각 경로간의 표준화된 회귀계수를 구하는 것이며, 간접효과는 경로간의 매개효과 크기를 구하는 것으로 경로간 값을 곱하는 것으로 구해진다. 그리고 총효과는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합한 값으로 산출된다. 본고에서 연구모형의 총효과는 -.154로 확인되었다. 이중 직접효과는 .045, 간접효과는 -.199로서 구축되고 있음이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우선 사회참여→사회적 지지→자살생각 경로의 경우, $-.138(.497 \times -.278)$ 의 간접효과 값이 표지되었다. 그리고 사회참여→자기효능감→자살생각 경로는 $-.061(.467 \times -.130)$ 의 간접효과 값이 확인되었다. 상기한 결과는 사회참여→사회적 지지→자살생각의 경로가 가장 우월한 설명력을 보유함을 인지하게 해준다.

표 6. 주요 경로들의 효과크기 분해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비표준화	표준화	비표준화	표준화	비표준화	표준화
사회참여→자살생각	.033	.045			.033	.045
사회참여→사회적 지지→자살생각			-.101	-.138	-.101	-.138
사회참여→자기효능감→자살생각			-.044	-.061	-.044	-.061

V. 결론 및 논의

본고의 목적은 사회참여가 노인 자살생각을 예측·설명하는 경로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와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사회참여가 노인 자살생각에 도달하는 직접경로와 사회적 지지와 자기효능감을 매개하여 노인 자살생각을 예측하는 매개경로의 검증을 시행하였다. 이에 본고에서는 분석자료

로 서울시 복지패널 2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이중 65세 이상 노인 1,429명을 추출하여 분석에 투입하였다. 분석방법으로 SPSS 19.0의 빈도분석, 신뢰도 검증, 정규성 검정을 이용하였으며, 매개효과 검정을 위해 AMOS 18.0의 구조방정식 모형을 적용하였다. 상기한 절차를 경유하여 검증된 결과 및 이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우선, 첫 번째로, 사회참여의 노인 자살생각 설명계수는 유의미한 수준에서 검증되었다. 제시된 결과는 사회참여가 노인의 자살생각과 부적 영향이 실증한 기존 연구[14][28]와 일치하는 부문이라 하겠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사회참여와 노인 자살생각 간의 직접효과가 사회적 지지와 자기효능감이라는 매개변수가 통제된 상황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통계적으로 완전매개효과로 개념·정의된다. 이러한 결과는 단순히 사회참여 수준으로 노인 자살생각을 예측·설명할 수 없으며, 사회참여와 연동되는 사회적 지지·자기효능감의 매개경로를 통해서만 노인 자살생각을 유의미하게 설명할 수 있음을 부각한다 하겠다.

이에 본고에서는 사회참여가 사회적 지지를 경유하여, 재차 사회적 지지가 자살생각에 도달하는 경로를 고찰하였다. 검증결과, 사회참여가 사회적 지지 수준을 배양하여, 최종적으로 사회적 지지에서 노인 자살생각에 도달하는 경로가 유의미한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통계적으로 개별경로를 설명하는 회귀계수가 모두 유의미한 수준으로 검증되었으며, sobel 검증에서도 매개효과 유의수준을 입증하였다. 이러한 경로결과는 사회참여가 사회적 지지 수준을 상승시키며[17][29][20], 재차 사회적 지지가 노인의 자살생각에 최종 도달한다는 기존 연구결과와 일치한다고 하겠다[9][22][26][30][31]. 이는 노인이 사회참여를 통해, 집단·조직에 내재한 구성원간의 일체감·격려 등의 사회적 지지를 획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사회참여를 통해 획득한 사회적 지지는 정서적 안정감을 부양하여, 극단적 선택의 전조인 노인의 자살생각을 경감시킬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응용·실현하기 위한 개입 방안으로 우선, 사회참여의 질적수준을 향상시키는 방안이 요구된다. 구체적으로 노인의 사회참여가 형식적·단기적 참여에서 탈

피하여, 실질적·정기적 참여가 가능한 지역사회 내 조직체계·프로그램이 수반되어야 한다. 그리고 노인 개인의 연령·기호·가치체계를 파악·인지하고 이에 부합한 구성원이 참여하는 단체에 대한 연결기능이 지역사회 내 복지관에 신설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참여 단체·조직 구성원 간 지지기능을 증진할 수 있는 개입 프로그램 개발·기획이 동반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회참여가 자기효능감을 경유한 후, 자기효능감이 노인 자살생각에 도달하는 경로를 설정하였다. 검증결과, 사회참여가 자기효능감을 증진하고, 향상된 자기효능감이 노인의 자살생각을 저하시키고 있음이 도출되었다. 상기한 매개효과의 수준 역시, sobel 검증 역시 유의미한 수준으로 도출되었다. 이러한 경로결과는 사회참여가 자기효능감 수준을 증가시켜[21][23], 최종적으로 자기효능감이 노년기 자살생각과 부적상관을 입증한 기존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라 하겠다[24][32-34]. 즉, 사회참여를 통해 제공받는 역할 정체감·소속감 등은 한 조직 내에서 자신의 위치와 과업을 명료하게 인식시켜 준다. 그리고 제시된 과업의 수행·완료는 노인 개인에게 자아 역량에 대한 신뢰·확신감인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킨다. 궁극적으로 노인은 일정한 체계를 구비한 조직에의 참여를 통해 정체감과 역량에 대한 신뢰를 획득할 수 있고, 이러한 요인은 정신건강 개선을 통해 자살생각 수준을 저하시킬 수 있다. 이에 대한 개입 방안으로서, 우선, 노인 개인의 역량 수준·가치관·기호를 고려한 사회참여 단체를 발굴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복지관 등의 기관이 노인의 사회경제적 위치를 파악·인지하고, 참여조직 내에서 수행 가능한 효과적·생산적인 역할·과업의 신설·개발 필요성을 인지시켜 준다. 그리고 사회참여 조직 내에서 과업을 수행할 시, 이를 진행·완료할 수 있는 노인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단체 내부 구성원들이 자체적으로 과업을 기획·조직화 할 수 있는 효과적·효율적 체계 구축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

상기한 논의처럼, 본고는 사회참여가 노인의 자살생각을 예측·설명하는 직접경로와 함께,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를 통해 자살생각에 도달하는 간접경

로 역시 통계적으로 검증하였다. 구체적으로, 노인의 자살생각과 같은 정신건강 문제가 지역사회 내부의 2차 집단을 통해 해소될 수 있으며, 가족을 제외한 외부집단에의 참여가 노인에게 개인 역량에 대한 자신감·신뢰감을 회복시켜 줄 수 있음이 본고를 통해 규명되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2차 집단과 개인 역량간의 구조경로를 통해 노인 자살생각 예측모형을 도출한 것에 그 의의를 둔다.

그러나 위에 제시된 연구의 의의에도, 본고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보유한다. 첫째, 본고는 노인을 구성하는 다양한 집단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가 결여되어 있다. 노인은 우선 성별에 의한 구분, 신체적 기능에 의한 구분, 사회·경제적 위치에 대한 구분 등 다양한 관점에서 차별성이 존립한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연구대상을 65세 이상 노인으로 통합하여 고찰하였기에 상기집단을 구별하는 인구·사회학적 차원에서 한계를 노출한다. 둘째, 본고는 횡단적 자료에 국한하여 접근한 한계가 존재한다. 노인의 자살생각은 단기간에 형성된 의식구조라 단언할 수 없다. 자살생각은 장기간 형성된 환경요인과 이로 인해 발생한 개인·심리적 문제가 결합되어 나타난다. 즉, 횡단적 차원이 아닌 종단적 접근을 통해 노인 자살생각 형성에 기여하는 원인요소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고는 측정방식에 대한 한계점을 보유하고 있다. 본고에서 사용한 분석자료는 2차 자료로서 척도의 구성이 상대적으로 단순하다. 이는 척도 자체의 타당도와 신뢰도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에 추후 연구에서는 고찰하고자 하는 개념이 더욱 충실히 반영된 구조화된 설문지를 논의에 응용할 필요성이 부각된다.

참 고 문 헌

[1] 최성재, 장인협, 노인복지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5.
 [2] 오인근, 오영삼, 김명일, “여성노인의 사회적 관계망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연구 : 건강증진행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제14권,

- 제1호, pp.113-136, 2009.
- [3] 신학진, “노인차별경험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과 절망과 우울의 매개효과”, 노인복지연구, 제56권, pp.191-216, 2012.
- [4] 윤현숙, 구분미, “노인의 건강상태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한국사회복지학, 제61권, 제2호, pp.303-324, 2009.
- [5] 김동배, 박서영, “노인의 사회관계망 특성과 자살생각 관계 : 우울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제24권, pp.109-129, 2010.
- [6] H. O'Connell, A. V. Chin, C. Cunningham, and B. A. Lawlor, "Recent developments : Suicide in older people," Clinical review, Vol.16, No.8, pp.895-899, 2004.
- [7] 김미령, “노인 자살생각에 미치는 사회적 심리적 영향”, 노인복지연구, 제47권, pp.113-136, 2010.
- [8] 김형수, “한국노인의 자살생각과 관련요인 연구”, 한국노년학, 제22권, 제1호, pp.159-172, 2002.
- [9] 서문진희, 이현아, “주관적 건강인식과 사회적 지지가 노인자살 생각에 미치는 영향 : 우울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제54권, pp.361-385, 2011.
- [10] H. O'Connell, A. V. Chin, C. Cunningham, and B. A. Lawlor, "Recent developments : Suicide in older people," Clinical Review, Vol.329, No.16, pp.895-899, 2004.
- [11] 이인정, “노인의 우울과 자살생각의 관계에 대한 위기사건,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보건사회연구, 제31권, 제4호, pp.34-64, 2011.
- [12] D. De Leo, M. D. Buono, and J. Dwyer, "Suicide among the elderly : the long-term impact of a telephone support and assessment intervention in northern Italy,"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Vol.181, pp.226-229, 2002.
- [13] 김현정, 황의갑, “자살위험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애그뉴의 일반긴장이론을 중심으로 한국 범죄학”, 제5권, 제1호, pp.75-110, 2011.
- [14] 배진희, “노인 자살에 대한 심리사회적 자원의 완충효과에 관한 연구”, 제21권, 제1호, 사회연구, pp.39-67, 2011.
- [15] 최신애, 하규수, “노인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요인 : 중증만성질환자 돌봄 노인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2권, 제6호, pp.265-279, 2012.
- [16] 주경희, “노인의 사회참여 활동영역과 수준에 따른 삶의 질 비교연구 : 객관적 및 주관적 삶의 질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복지학, 제39권, pp.231-264, 2011.
- [17] 김동배, 김상범, 신수민, “무배우자 노인의 사회참여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제32권, 제1호, pp.289-303, 2012.
- [18] 임지영, 노인의 지역사회참여가 스트레스 및 자살생각에 미치는 조절효과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 [19] 최인, 김영숙, 서경련, “노인 자살충동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적 요인”, 보건과 사회과학, 제25권, pp.33-56, 2009.
- [20] 조근중, “노인의 사회활동참여와 사회적 지지 및 일상생활수행능력의 관계”, 한국체육학회지, 제39권, 제3호, pp.198-207, 2000.
- [21] 허준수, “노인일자리 사업과 노인자원봉사활동의 참여 노인들의 자기효능감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논총, 제14권, pp.89-128, 2011.
- [22] 양남영, 문선영, “노인의 건강상태, 사회적 지지 및 생활만족도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정책연구, 제10권, 제11호, pp.515-524, 2012.
- [23] 하춘광, 김효순, “노인일자리 참여만족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제36권, 제4호, pp.393-414, 2009.
- [24] Y. Conwell, "Suicide in Later Life : A Review and Recommendations for Prevention," Suicide and Threatening Behavior, Vol.31, pp.32-47, 2001.
- [25] <http://preview.britannica.co.kr/>

- [26] 최형임, 노인 자살생각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 [27] 신상진, 조영태, “사회자본과 자살충동”,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제24권, 제3호, pp.35-49, 2007.
- [28] 조추용, “노인의 여가활용과 사회참여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제22권, pp.7-34, 2003.
- [29] 박정호, 노년기 사회적 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비공식적 지지를 중심으로, 목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30] M. M. Fässberg, K. A. van Orden, P. Duberstein, A. Erlangsen, S. Lapierre, E. Bodner, S. S. Canetto, D. De Leo, K. Szanto, and M. Waern, "A Systematic Review of Social Factors and Suicidal Behavior in Older Adulthood,"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Vol.9, pp.722-745, 2012.
- [31] P. J. Raue, B. S. Meyers, J. L. Rowe, M. Heo, and M. L. Bruce, "Suicidal ideation among elderly homecare pati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Geriatric Psychiatry, Vol.22, pp.32-37, 2007.
- [32] A. Bandura, C. Pastorelli, C. Barbaranelli, and G. V. Caprara, "Self-Efficacy Pathways to Childhood Depres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76, No.2, pp.258-269, 1999.
- [33] T. F. Locke and M. D. Newcomb, "Psychosocial Predictors and Correlates of Suicidality in Teenage Latino Males," Hispanic Journal of Behavioral Sciences, Vol.27, No.3, pp.319-336, 2005.
- [34] D. Malfent, T. Wondrak, N. D. Kapusta, and G. Sonneck, "Suicidal ideation and its correlates among elderly in residential care homes," International Journal of Geriatric Psychiatry, Vol.25, pp.843-849, 2010.

저 자 소 개

정 일 영(II-Young Jeong)

정회원



- 2006년 8월 : 한신대학교 국어국문학과(문학사)
 - 2008년 8월 :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문학석사)
 - 2011년 3월 ~ 현재 :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 <관심분야> : 노인복지, 청소년복지, 지역사회복지